

인문대 사람들

HK문명연구사업단

이번 호의 '인문대 사람들'은 서울대학 인문학연구원의 인문한국(HK) 문명연구사업단을 만나 보았다.

종교학과에서 최근에 학위를 받은 안연희(사업단 연구보조원) 박사가 연구원의 강성용(철학), 성해영(종교학) 두 HK교수를 인터뷰하였다.



• HK문명연구사업단

안: 먼저 두 교수님이 이 사업단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 우리는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소속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지원사업에 기초한 인문학 분야 연구소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입니다. 연구 아젠다는 '문명의 허브를 향하여,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구상'으로 인문, 사회 분야의 박사들 스물 한명이 모여 '문명'이라는 키워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출범해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강: 전례가 없는 사업인 탓에 출범한 이후 상당한, 솔직히 말하면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요. (웃음) 그렇지만 모두의 노력 덕분에 2010년에 있었던 연구재단의 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외에도 개인연구나 공동연구는 물론이고 연구소 운영이라는 점에서도 모범적인 사업단이라는 좋은 평을 주변에서 듣고 합니다. 대학연구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연구소 지원을 통한 인문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는 이 사업의 근본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나 할까요.

성: 그렇게 보면 지난 5년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소의 역할을 모색하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연구소 소속 교수로서 연구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학 연구소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과 그 대응이라는 게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 사이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에 기반한 연구 공동체의 확립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안: 저 역시 연구소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강: 한편으로는 우리 학계가 아직 실질적인 공동연구나 통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도 절감했지요. 예컨대 인문학자가 건축학이나 지리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회 보기 전에는 통섭이나 학제적 연구의 의미를 실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행히 인문학연구원에는 이런 분야의 전공자들이 계셔서 공동연구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지요.

성: 저 역시 연구공동체의 인적 교류가 곧바로 학문적인 지평의 확대로 이어진

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그저 공허한 담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단은 개인연구자들이 집필하는 주해총서를 한길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 총서 역시 시리즈물로 발간하고 있지요. 실제로 주해총서 중에서 학술원 우수학술도서가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강: 이런 결과들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공동연구의 장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10년의 장기 지원이라는 긴 호흡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요? 덧붙여 이런 장기 지원은 결국 인문대 소속의 개별 연구소들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와 같은 학문적 교류의 활성화라는 점에서도 말이죠. 예컨대 안 박사도 박사과정 중에 우리 사업단의 공동연구팀에 참여해 정말 활발하게 연구를 하셨잖아요. (웃음)

안: 예. 박사 과정생인 저에게는 공동연구가 참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학과에서는 접하기 힘든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지요. (웃음)

강: 현재의 대학 시스템에 그런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인문한국 사업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예컨대 사업단에서 '직하서당'이라는 이름의 공부 모임이 여럿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학교 소속이 아닌 분들에게까지 문호를 넓혀 3년이 넘게 인도고전어를 공부해 왔고, 이제는 모두가 공동번역에 참여할 만큼의 성취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성: 그렇게 보면 직하서당의 사례는 대학연구소가 대학의 학과체제와 상보적이며,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공동연구는 물론이고, 유연한 방식의 교육을 연구소가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이지요.

안: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강: 향후 인문학분야의 지원이 대규모, 장기 사업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특히 시대적 추세인 학제적 연구는 연구 공동체를 통한 인력 양성이 주된 초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점에서 대학 연구소는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법인화된 서울대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성: HK사업은 인문학 분야에 10년에 걸쳐 4천억을 투입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향후 인문학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규모를 결정지를 거라 봅니다. 소중한 기회임에 분명하니, 인문학계가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